

색의 상징성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한다

파랑
유행을 타지 않은 색

빨강
불과 피, 사랑과 지옥의 색

하양
순수와 순결을 주장하는 색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색의 인문학

미셸 파스투로·도미니크 시모네 지음
고봉만 옮김

“색에 대한 취향은 매우 더디게 바뀝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파랑은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랑은 모든 사람들로 부터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또 파랑은 여론조사에서 가장 덜 미움을 받는 색입니다. 공격적이지도 않고 어떤 것도 위반하는 일이 없으므로 안정감을 주며 사람을 결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연합, 유네스코, 유럽의회, 유럽연합 같은 국제기구들도 이런 이유에서 파랑을 상징색으로 선택했을 것입니다.”(본문중에서)



우리는 매순간 순간 색을 접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무수히 많은 색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나 색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의 색에 대한 무관심과는 달리, 색은 삶

의 현장 곳곳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색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색에 품고 있는 사치 규범과, 금기, 편견 등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그리고 다양한 의미로 변주되어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태도, 언어와 상상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색이 인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묶은 책이 발간됐다. 서양 상징사의 대가 미셸 파스투로가 들려주는 ‘색의 인문학’은 색에 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색채 분야 국제적 전문가인 미셸 파스투로와 저널리스트인 도미니크 시모네의 대담으로 구성돼 있으며, 색에 대한 모든 것을 망라한다.

미셸 파스투로는 인간은 파랑, 빨강, 하양, 초록, 노랑, 감정의 여섯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체계속에서 산다고 본다.

먼저 그는 파랑을 언급한다. 현대인들이 파랑을 좋아하는 이유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원래 청색은 프랑스 3공화국에선 우파를 상징했으며 1차 대전 이후에는 보수파 색으로 변했다. 그러다 1919년 새로 구성된 의회에는 “지평선 청색” 군복을 입은 보수파 의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를 “지평선 청색 의회”라고 불렀다고 한다.

미셸 파스투로는 빨강을 “권력을 갈망하는 색”으로 규정한다. 종교나 전쟁에서 힘을 상징했으며 일부 고위 성직자들은 빨강색 옷을 입었다. 저자는 불의 색인 빨강은 생명을 상징하면서도 한편으로 죽음과 지옥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재생의 불에서 일어나는 붉은빛 기운”이면서도 “더럽혀진 육체, 피의 범죄, 죄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순수와 순결을 주장하는 색’ 하양에 대한 해석도

흥미롭다. 웨딩드레스하면 가장 먼저 흰색이 떠오른다. 그러나 불과 몇 세기 전만해도 웨딩드레스의 색은 빨강이었다는 것이다. 언급한 대로 “권력의 힘, 전쟁에서의 승리, 화려한 아름다움”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늘날 하양은 천사나 불면의 밤을 환기한다.

초록에 대해 저자는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색’으로 규정한다. 녹색의 이면에 드리워진 다른 상징성을 면밀히 고찰할 것을 주문한다.

“녹색은 우리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있다. 무언가 흥계를 꾸미고 있어 음흉하고, 몰밀 협상을 선호하므로 위선적이며, 불안정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하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와 녹색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

노랑에 대한 견해도 이색적이다. 콤플렉스투성이인 노랑은 자신의 처지에 부당함을 느낀다. 저자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흘려왔으니 그런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극명하게 상반된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색은 검정이다. 속 다르고 겉다른 색이 바로 까만색이다. 그로 인해 엄격함과 뉘우침이라는 의미 외에 “의식용 정장에서도 같이 우아함과 오만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색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해석 또한 한두 가지로 정의될 수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변화무쌍한 역사기 이를 방증한다. 중요한 것은 색을 통해 보고 느끼는 것을 알게 되면 세상 또한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이다.

〈미술문화·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초록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색

노랑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쓴 색

검정
애도와 우아함의 색

우리가 사랑했던 그리운 그 작가

조성일 지음

이상, 이태준, 박태준, 정지용, 박경리, 황순원, 박완서, 법정, 이문구, 기형도, 최명희... 시대를 넘어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작가들이다. 우리 문학사를 빛내고 곁을 떠난 작가 28명의 삶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발간됐다.



조성일 출판 평론가가 펴낸 ‘우리가 사랑했던 그리운 그 작가’는 작품만으로는 알 수 없는 작가들의 실제 삶에 포커스를 맞췄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는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준다.

시인 이상은 세 살 무렵 큰아버지에게 양자로 입적됐다. 기술자는 배를 굶지 않는다는 백부의 지론대로 건축과에 들어갔지만 교지 ‘난파선’을 만들면서 문학에 심취한다. 이후 건축기사가 된 후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만 여러 삶의 풍파에 휩싸인다. 연인과의 이별, 건강의 악화, 육살이까지 이어졌으며 결국 아내에게 ‘벨론이 먹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만다.

올해로 입적 10주기를 맞은 ‘무소유’의 저자 법정스님의 삶도 다룬다. 원래 등대지기 꿈이었던 법정은 전남대 상과대학에 진학하지만 한국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존적 고민에 빠졌다. 그렇게 불가에 입문한 그는 ‘사발하고 떡볶이 웃으로 같이 먹고 나니 월월 날아갈 것 같았다’.

저자는 작가의 흔적이 남은 곳 중 인상 깊은 장소로 최인호의 집필실을 꼽는다. 출판사 여백미디어에 보존돼 있는 집필실에는 전용 원고지, 뚜껑 열린 만년필, 국어사전과 영한사전, 서가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다. 어디선가 작가 최인호가 창작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피워낸다.

〈지식여행·1만3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직 밤뿐인

존 윌리엄스 지음, 정세운 옮김

어느 호텔에 머무는 한 청년은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감정의 기복이 없어 보이는 그는 사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환상을 보는 것이다. 소원했던 친구와의 만남 이후 한동안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혐오와 그리움이라는 상반된 감정에 휩싸인다. 그의 내면은 하루하루 감정의 극단에 도달한다.



한 청년의 짧고도 긴 하루를 쫓는 환상의 심리소설 ‘오직 밤뿐인’은 덴버대학교 교수였던 존 윌리엄스의 작품이다. 로마의 폭력적인 시대를 다룬 ‘아우구스투스’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했던 작가의 이번 작품은 심리적 외상이 평생에 미치는 영향을 세세히 묘사한다. 주인공 아서 맥슬리의 하루가 압축된 소설은 마치 그의 인생을 훑는 듯 세밀하다. 그는 왜 우울한 환상에 시달릴까.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혐오를 할까. 아서는 자신과 세상을 미워하면서도 내심 애정을 갈구한다.

환상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힘든 난해한 장면들로 소설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미세한 관찰력, 드라마틱한 현장감과 박진감이 전면에 흐르고 있어 재미를 선사한다. 작가의 깊이 있는 필력은 달걀 프라이 묘사에만 한 페이지를 할애한 장면에서도 두드러진다. “노란색 눈알이 그를 맞받아 불수축 몹시 불편해졌다... 마칸대는 흰색 구체에서 노란색 농도가 아직도 그를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소설은 유년시절에 겪은 어떤 경험이 트라우마로 전이되는 과정과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다. 22세 때 작가가 버마에서 복무했던 체험 등이 녹아 있어 다소 자전적인 느낌도 없지 않다. 실제로 작가는 1942년 공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여해 부상을 당했다.

〈구픽·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밥이 그리워졌다

김용희 지음

“라면이 있기에 청춘의 삶은 계속된다. 수많은 자취생과 혼족을 위로해주는 음식, 배고픈 청춘들의 서울푸드”



텔레비전 화면에 수많은 ‘떡방’이 넘쳐나지만 현대인들은 아무리 먹고 먹어도 영혼의 허기에 허덕인다. 이러한 허기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바로 음식이다. 단순한 물질을 넘어 인생의 추억을 소환하는 음식을 소개하는 예세이가 출간됐다. ‘밥이 그리워졌다’가 그것.

문학평론가이자 소설가인 저자 김용희는 ‘인생이 허기질 때 나를 지켜주는 음식’을 주제로 ‘이번 생에서 기억할 만한 음식’ 50가지에 대해 소개한다.

저자는 칼국수, 삼겹살, 양푼비빔밥, 떡볶이, 김치찌개, 라면, 짜장면, 설렁탕, 돈가스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음식을 소재로 한 소설, 영화, 시, 음악도 함께 다룬다.

칼국수 편에선 김애란의 소설 ‘칼국수’가, 달걀말이 편엔 이누도 잇신(犬童一心) 감독의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 속 폭신한 달걀말이가 나온다. 고등어구이 편엔 김창환의 노래 ‘어머니와 고등어’가, 삼겹살 편엔 송해성 감독의 영화 ‘고령화가족’이 등장한다. ‘고령화가족’ 속 어머니는 인생에서 패배하고 집으로 기어 들어온 중년의 세 남매에게 매일 힘내라며 지글지글 삼겹살을 구워준다.

이밖에도 버스커버스의 ‘막걸리나’, 영화 ‘너의 결혼식’, 악동뮤지션의 ‘라면인건가’, 영화 ‘극한직업’ 등이 음식과 함께 등장한다.

저자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순간, 그 음식들이 함께 있어 주었고 함께 웃고 울어 주었다”고 말한다.

〈인물과사상사·1만45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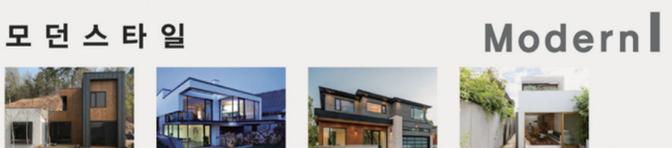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



